"차별없는 성장으로 가족행복시대 열터"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인터뷰

신항락 편집국장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밝았다. 광주일보와의 인터뷰 직전 이뤄진 이해찬 의원, 손학규 전 지사, 김근태 의원, 오충일 대표 등 4인 공동선대위원장 회동에서 '정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합의문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경선 이후 단 일주일 만에 당내 통합을 이뤘다"며 "이제 대선 승리로 가는 일만이 남았다"며 인터뷰 내내 대선 승리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 후보와의 인터뷰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통합신당 5층 정 후보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이뤄졌다.

고속철 2014년 마무리 '빠른 호남' 만들 것

시·군·구 우수공립학교 세워 교육환경 개선

정치개혁·남북경협 등 참여정부 공과 승계

'호남후보 한계론' 지역주의 활용 불순 의도

— 경선 승리를 축하한다.

▲감사하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의해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됐다.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경선 이후 단 일주일 만에 내부 통합을 이루고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

— 대선 후보로서 제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 온 열매를 앞으로 5년 동안 잘 수확해서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야 한다. 수구·냉전·부패 세력이 집권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내가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차별 없는 성장'을 통한 '가족 행복시대'이다. 공약 발표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나간다면 적극적인 지지로 이어질 것이다.

— 이번 대선의 화두는 경제다. 이명박 후보와의 대결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경제는 맞다. 그러나 경제의 가치가 문제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가치 대 낡은 가치의 전면전이다. 행복한 가족 대 정글 자본주의, 넓고 많은 기회의 시대 대 교육 양극화 심화 시대, 차별없는 성장 대 특권 경제, 통합의 사회 대 승자독식 사회, 한반도 평화시대 대 대결주의 시대 등으로 구분될 것이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경제를 이슈로 내세워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올 대선은 이 후보와 대결에서 평화, 경제, 개혁 전선이 이뤄질 것이다. 그 중 평화와 개혁 부문은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위가 있다. 문제는 경제인데 그것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해보는 차원에서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 경제란 측면에서 이명박 후보가 우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경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이 후보는 훌륭한 경쟁자이지만 추구하는 경제 가치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경제 가치는 △가족 행복의 가치 △넓은 기회의 가치 △좋은 성장의 가치 등이다. 우선 가족 행복의 가치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정글 자본주의'와 다르다. 이 후보가 생각하는 가치는 강자만 살아남는, 20%의 사람만 향상되고 80%는 버려지는 것으로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가족 행복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가족 행복의 가치는 가족이 떠맡아야 할 책임, 이를테면 노후·건강·일자리·사교육 등을 국가가 적극 떠안는 것을 의미한다.

— 정 후보가 말하는 '좋은 성장'이란 뭔가.

▲일자리가,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을 의미한다. 이 후보의 성장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좋은 성장은 차별 없는 성장이다. 우선 부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큰 부자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할 전략은 일자리의 88%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기술 사회를 적극 지향하며 대륙경제시대를 열어야 한다. 4천만 중산층시대로 가기 위해서 사람·기술·자본·사기 등이 부족한데 이 네 가지를 대통령이 뚫어내겠다. 또 경제영토를 세계로 넓혀 개성공단 확장,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로 토지, 노동, 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면 시장이 커지고 일거리가 많아져 잠재성장률이 오를 것이다. 결국, 이번 대선은 '서민경제와 재벌경제의 대결'이 될 것이다.

— 농촌문제도 심각하다.

▲내가 제시한 차별 없는 성장의 정책 테두리 내에서 한국이 농촌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결국 농촌 문제는 교육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대도시보다 더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들면 대도시에서 거꾸로 농촌을 찾아올 것이다. 군 단위에 우수공립고교를 만들어 교장공모제와 교장 인사자율권 등을 보장하면 농촌의 교육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또 대외개방을 반대하는 것만으로 농촌의 발전을 꾀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농업을 효자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 경선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대에는 못 미친다.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정동영 대 이명박의 일대일 구도가 더욱 확고해지고 상호 토론과 검증을 거치면 박빙을 넘어 역전이 될 것이다.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국민에게 판단할 수 있는 검증의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져야 한다.

— 정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특히, 호남 후보 한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역주의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국민은 미래로 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출생 지역이 기회마저 박탈하는 사회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 영남에서의 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나는 돼지저금통을 매고 부산 자갈치시장, 부산 지하철을 누비며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뛰었다. 이제 영남에서도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 영남에서의 지지율 확보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얻은 영남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이 목표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25%(175만여 표)를 득표했다. 나의 목표는 30% 돌파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정동영 대 이명박 일대일 구도가 확고해지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영남 유권자들의 지지가 결집할 것이다. 특히, 본격적인 가치 경쟁이 시작되면서 영남 지역의 지지율은 20%대를 넘어 30%대를 돌파하면서 지역주의 혁파의 임계점이 될 것이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50%가 넘는 고공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한나라당에 대한 고정 지지층은 35% 수준이다.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을 받치고 있는 것은 IMF 이후 양극화의 폐해가 가장 심했던 수도권 지역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가치 경쟁이 시작되면 내가 내세우고 있는 '차별 없는 성장', '가족 행복시대'는 수도권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거품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것이다.

— 참여정부 공과를 승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참여정부의 공은 권위주의 청산으로 대표되는 정치 개혁이며 남북 경제협력의 강화,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이다. 미흡한 부분은 국민과의 소통 부족과 양극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 못 한 점이라고 본다.

— 민주당 분당 등 정 후보가 보여준 정치는 신의보다는 배신으로 점철됐다는 데.

▲12년동안 정치를 하면서 모든 기준을 국민의 뜻, 민심에 두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른 정치라고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원칙과 상황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해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2007년 대선 승리로 화답할 것이다. 이것이 민심을 따르는 길이고 그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와 함께 대선 이전 민주당과의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민주평화개혁 세력 대 수구냉전부패 세력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것은 절대적인 지상과제다. 내가 먼저 더 큰 통합, 단일 대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대통합 방안으로 대선 직전 민주당, 창조한국당 후보 등과 함께 원샷 대통합(후보단일화+정당 통합)을 이뤄 국민적 감동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원샷 대통합을 포함, 모든 대통합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여기에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가치와 비전, 정책을 만들어 가는 가치연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즉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고, 민주적 토론과 합의, 합리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을 따르고 승복하는 방향이다.

〈5면에 계속〉

23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가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회장단과 상견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우측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062)220-0524 •직통:(062)227-9600 •FAX:227-9500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분할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주)보경전기("갑"이라 한다)와 (주)회영전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서기 2007년 10월 22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을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2항의 결의절차를 밟아 상법 제530조의9제1항의 출자제산 이외의 제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07년 10월 24일
"갑" 주식회사 보경전기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864
대표이사 이 상 선
"을" 주식회사 화영전설
강원도 횡원군 갑화읍 칭양리 1728-6
공동대표이사 이 재 현, 임 경 숙

분할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주)동명전력(이하"갑"이라 한다)과 (주)청화전설(이하"을"이라 한다)는 2007년 10월 23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2항의 결의절차를 밟아 상법 제530조의9제1항의 출자제산 이외의 제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07년 10월 24일
"갑" 주식회사 동명전력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880-6
대표이사 임 영 춘
"을" 주식회사 청화전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7-1 캠버스뷰 307호
대표이사 박 정 민, 최 대 우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건화"갑"에서는 2007년 10월 22일, 주식회사 대한통신"을"에서는 같은 달 22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구주권을 관계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3일
"갑" 주식회사 건화
화순군 화순읍 서태리 609-1
대표이사 서 재 선
"을" 주식회사 대한통신
광주 남구 양림동 115-1
이 사 조 수 남

청산 및 채권신고 공고

당 회사는 2007년 8월 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8월 8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기에 청산종결을 함에 있어 당 회사에 대하여 제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4일
산학메이커리 주식회사
전남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731-1
청산인 이 문 규

공 시 최 고

사 건 2007카공 15
신청인 김인숙
광주 북구 두암동 593-13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8. 1. 28.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 : 자기앞수표
· 번 호 : 다가10623500
· 금 액 : 금500,000원
· 번 호 : 가다28364359
· 금 액 : 금100,000원
· 발 행 일 : 2007년 1월 29일
· 발 행 인 : 강진축산농업협동조합
· 최후소지인 : 김인숙

2007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임 수 회

광주관하 제 99-14호
화물자동차 전문매매
• 중고차량 매입,화물차 판매,이전등록
• 영업용 차량번호 알선(개별화물 포함)
• 중고 전 차량 2.5톤, 3.5톤,5톤,11톤,25톤, 윙바디, 냉탑포함

박 기 수
011-602-7494
각화동 화물자동차 (주)

식 당 임 대
• 전대4거리 15평 식당
• 보증금500,월30,권리금800
• 현 성업중
조금나루뻘낙지
T.515-1777, 011-645-0832

『전라남도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및 직능인 상담사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직급, 인원, 자격요건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근무기간(채용조건)
소상공인지원업무	상담사	0명	1년 계약직
직능인업무	상담사	0명	2개월 임시직

※직군 구분 없이 모집하며, 성적 및 본인 희망에 따라 결정함.
※순천, 목포, 여수, 나주 지역 근무 가능자

■ 자격요건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상담사 자격)해당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 소상공인으로서 기업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또는 지도실시기관에서 2년 이상을 종사한 경력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면접시험(2차)→신체검사(3차)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전남신용보증재단(www.jnsinbo.or.kr)에서 다운로드 사용)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각 1부
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 등,초본 각1통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사. 국가유공자등 취업보호증명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접수기간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 2007. 10. 30(화)~2007. 11. 7(수)
(평일:09:00~18:00,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제 출 처 : (540-952)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326-1(6층)
다. 문 의 처 : (061)729-0612 전남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팀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단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소 상 공 인 지 원 센 터
전라남도 위탁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야간)
2008학년도 신입생모집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 80명
▶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가. 특별전형 : 모집인원의 60%이내
▶ 6급이상의 공무원, 공사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간부, 8년이상의 교직자, 군의 영관급 이상 장교, 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나. 일반전형 : 필답고사(행정학 및 법학 중 택일) 및 면접

2. 원서교부 및 접수
가. 특별전형
2007. 10. 22(월)~11. 8(목)
나. 일반전형
2007. 10. 22(월)~11. 15(목)

3. 연 락 처
가. 행정대학원 행정실
☎ (062)530-2206
나.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pacnu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